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2010. 1. 26



교육과학기술부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목 차

I. 도입 배경	1
II. 주요 내용	2
1. 영향평가의 개념	2
2. 영향평가 대상 학교	2
3. 영향평가의 주요 항목	3
4. 영향평가 방법	4
5. 영향평가의 심사 원칙	5
6. 영향평가 시스템	6
7. 영향평가의 특징	7
III.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계획	8
IV.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교육규칙 (표준안)	9
【참고 1】 영향평가 작성 양식	15
【참고 2】 사교육의 개념 및 현황	18
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18
2.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19
3. 사교육 국제 비교	21
【참고 3】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사례	23

▶ 특목고 등 입시에서 과도한 경쟁과 사교육 유발

- 특목고, 자율(립)형 사립고, 국제중 등 영어듣기 평가,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등으로 고등학교 입학에 위한 과도한 사교육 수요 유발
- 교과성적 우수학생을 선발하는 특별전형, 편입시험제도 운영으로 우수학생 독점 및 설립취지에 위배된 운영
- 일부학교에서 실시하는 입학사정관제는 수상실적, 인증 시험 점수 등을 반영하여 '학교 밖 스펙 쌓기' 유발 우려

▶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점검 기제 부족

- 평준화 지역은 입학전형권을 교육감이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목고 등은 실질적인 입학전형권을 개별 학교에서 행사하고 있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 제2항 : 평준화지역의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은 당해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 (비평준화 지역은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당해 학교의 장이 정함)

- 학생선발권을 지닌 학교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교하고 체계적인 점검기제 미비로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사전 배제가 곤란함

II

주요 내용

1. 개념

▶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의 개념

-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란 학생선발권을 가진 고등학교가 신입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 학생 선발이 사교육비 증감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여 사교육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임.

-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를 이하 매뉴얼에서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또는 '영향평가'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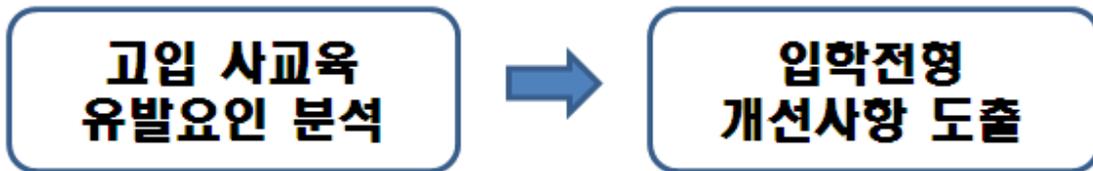
2. 영향평가 대상 학교

▶ 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란?

- 특수목적고등학교 :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국제 고등학교
- 자율형사립고등학교 : 학교별 선발을 실시하는 학교
 - 현행 추첨제를 시행하는 학교는 제외
- 면접 등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자율학교
- 추첨 이외의 학교별 전형을 실시하는 국제중학교

3. 영향평가의 주요 항목

- ▶ 점검항목 :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입학전형을 통한 사교육 유발 요인과 개선 사항 도출



- ▶ 고입 사교육 유발 요인에 대한 점검 사항
 - 학교별 필기고사 실시 여부
 - 교과지식을 묻는 형태의 구술면접, 적성검사 등 실시 여부
 -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자격증 취득 등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스펙평가 실시 여부
 -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
 -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 ▶ 문제점 도출 및 입학전형에 대한 개선 사항
 - 입학전형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 분석
 -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의 개선 사항

4. 영향평가 방법

▶ 학생선발권을 가진 학교 : 자율평가 실시

- 평가대상 고등학교별로 학교별 입시 사교육 영향에 대한 자율적 평가체계 구축·운영
- 자율평가체계 : 평가 전담 직원 지정, 학부모,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자율 평가 실시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을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
- 자율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하고, 시·도 교육청에 제출
- 입학전형기본계획의 방향에 맞춰 입학전형 요강 개선

▶ 시·도 교육청 : 심사 및 컨설팅

- 교육청별로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에서 학교별 자율 평가에 대한 심사 실시
 - ※ 기존 사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시 기존 위원회 확대·활용 : 정책 수요자(학부모 등), 중학교 교사, 교육 전문가, 대학 및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담당자(고입, 학원담당) 등으로 구성
- 심사 결과 우수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포상을 실시하되 부적합한 경우에는 입시 개선 컨설팅 실시
-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시 문제 부분에 대한 개선 후 학교별 입학전형 요강 관리
- 매년 실시되는 결과를 반영하여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매뉴얼 개선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5. 영향평가 심사 원칙

▶ 학생과 학부모의 관점에서 입학전형 분석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고교 입학에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가장 유리하도록 심사되어야 함

▶ 사교육과 고교 입학전형에 대한 전문성 확보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고교 입학전형 과정에 내재하는 사교육 유발 요인을 골라내고 제거하기 위해 평소에 사교육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수집·분석해야 함
- 사교육과 고교 입학에 대한 기초 지식을 축적해야만 평가 대상 입학전형의 기본 목적 및 취지를 훼손하거나, 오히려 사교육이 확대되는 부작용을 방지하여야 함

▶ 중학교 교육 정상화 및 입학전형의 최적화 추구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교입학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미치는 영향,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상시 분석하여 심사의 기초자료로 활용
- 각 연도의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와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 최적의 입학전형을 만들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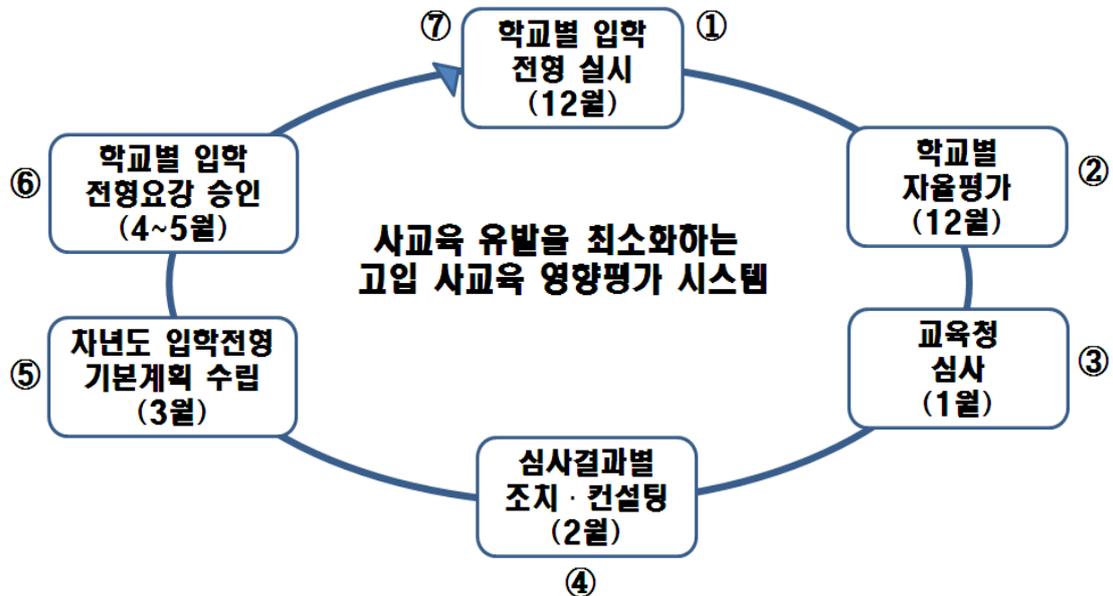
6. 영향평가 시스템

▶ 평가 시기

- 매 학년도 입학전형 실시 직후 학교별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시·도 교육청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3월) 전에 전체 평가 완료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절차

- 매년 고입 전형을 평가하고, 사교육 유발요소는 사전에 예방하는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학교별 전형 결과에 대한 사교육 영향평가와 심사를 거쳐 다음 해 입학전형 개선으로 환류



【그림】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시스템

7. 영향평가의 특징

- ▶ 사교육을 유발하는 고교 입학전형의 평가 가능
 -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전년도 입시 결과를 중심으로 사교육 유발 상황을 평가·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해 입학전형에 반영
- ▶ 사교육을 유발하는 고교 입학전형 사전 점검·개선
 - 고교 입학전형의 계획단계에서 사교육을 유발하는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개선하여 사교육 예방에 중점을 둠
 - 개인이나 학교 차원의 적발·처벌이 아닌 제도적 관점에서 시스템적인 해결방안을 모색

< 유사한 영향평가제도 >

구분	도입 시기	주요 목적	실효성 (구속력)
규제영향평가	19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리적 정책결정을 통한 규제의 질적 제고 · 행정의 책임성 제고 ·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규제의 신설 방지 	실효성 있음
환경영향평가	198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여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 	구속력 강함
부패영향평가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전에 부패발생 가능성 차단 · 본질적 부패발생원인 합리적 분석, 평가 · 반부패정책의 효율적인 추진기반 마련 · 정책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 제고 	실효성 있음
성별영향평가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차별을 제거하여 양성의 만족도 향상 · 양성의 공동참여, 균등한 발전기회를 보장하는 실질적 양성 평등정책 마련 	실효성 있음

Ⅲ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계획

▶ 2011학년도 입학전형에 대한 평가 실시

- 2011학년도는 고입이 실시되는 2010년 말에 정식 절차에 따른 평가 실시 ('10. 12.)
- 교육청별로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고, 학교별 컨설팅 실시 ('11. 2.)
- 학교별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에서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 시·도 교육청별로 2012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 수립 및 발표 ('11. 3.)
- 교육청별로 2012학년도 입학전형기본계획에 따라 2012학년도 입학전형시행계획 수립 ('11. 4.)

IV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교육규칙 (표준안)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운영규칙(안)

제정 2010. 0. 0. 0000시(도) 교육규칙 제000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초·중등교육법 제83조 제1항의 선발고사방법에 규정된 사항을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영향평가”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 ①이 지침의 적용대상은 추첨 이외의 방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고등학교와 그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한다.

④추첨에 의하지 않고 학생을 선발하는 중학교의 경우, 영향평가가 필요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입시”는 신입생을 선발하기 위해 실시하는 추첨 이외의 입학 방법 및 절차를 의미한다.
2. “사교육”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학교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을 말한다.
3. “영향평가”라 함은 학교의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자율평가와 심사의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4. “자율평가”라 함은 입시를 시행하는 해당 학교에서 입시가 사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5. “심사”라 함은 자율평가를 실시한 학교가 소재한 교육청에서 자율평가의 내용을 분석하는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6. “컨설팅”이라 함은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절차를 말한다.

제4조(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 위원회) ①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개별 학교의 자율평가를 심사하고 컨설팅을 수행하는 위원회를 교육청에서 구성하여 운영한다. 단 사교육 관련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경우 이를 고등학교 입학전형 사교육 영향평가위원회로 활용할 수 있다.

-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하고, 위원은 학부모, 교원, 사교육 전문가, 교육청 위촉 입학사정관, 교육청 담당자 등으로 구성한다.
- ④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2. 자율평가에 대한 심사 결과가 미흡하게 나온 경우 해당학교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3. 매뉴얼 및 관련제도 개선 사항의 발굴 및 건의
- ⑥위원은 위원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위원회 운영 지원 등 실무 추진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서는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영향평가 절차) ①영향평가 대상 학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자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와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 ③위원회는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 결과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9조의 고등학교입학전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수당 등) ① 위원회와 컨설팅에 참여한 외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컨설팅을 위해 학교방문 등을 한 외부위원에게는 활동에 필요한 현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기타)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감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참고 1. 영향평가 작성 양식

참고 2. 사교육의 개념 및 현황

참고 3. 고등학교 입시 대비 사교육 유발 사례

참고 1

영향평가 작성 양식

※ 관리번호				
0000년도 자율평가 결과보고서				
합격자 발표일			제출일	
별도 붙임자료	1. 00학년도 신입생 전형요강 2. 00학년도 신입생 전형 및 평가관련 자료 3. 의견 수렴 내용 등 심사에 필요한 참고자료 등			
작성자	부서명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확인자 (학교장)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고등학교

학교장
직인

※ 「관리번호」는 시도 교육청 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 기재

항목별 체크리스트

평가항목	질문내용	해당 여부	응답내용 (해당부분 진하게)
1. 사교육 유발요인	1. 학교별 필기고사 실시 여부	○ ×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2. 교과지식을 묻는 구술 시험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3. 학교외 경시대회, 인증시험 등 스펙평가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4.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학전형 실시 여부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5. 기타 사교육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높음	
2. 개선 사항	6. 입학전형 과정에서 개선된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7. 다음 학년도 입학전형 시 개선할 사항		① 전혀 없음
			② 다소 있음
			③ 상당히 많음

※ 평가항목별 검토결과와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별도 작성

사교육 유발 요인 및 개선 사항

1. 사교육 유발 요인 분석

□ 사교육 유발 요인 1

- 요인에 대한 분석
 - 상세한 설명
- ※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자료 작성

□ 사교육 유발 요인 2

- 요인에 대한 분석
 - 상세한 설명
- ※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자료 작성

2. 개선 사항

□ 사교육 유발 요인 개선 사항

- 개선에 필요한 구체적 조치 사항
 - 상세한 설명
- ※ 구체적인 수치나 통계 자료 작성

1. 사교육이란 무엇인가?

▶ 사교육(私敎育, private education)의 정의

- 사교육이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공교육 안에서의 학업 성취를 보완하거나 상급학교 진학에 도움이 되도록 학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공교육 밖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보충적 과외 교습(supplementary private tutoring)’을 말함.
- 특히, 고등학교 입시 사교육 영향평가(이하 ‘고입 사교육 영향평가’)는 일부 고등학교의 입시로 인해 유발되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평가의 대상으로 함.

〈 유사·관련 개념 〉

- **공교육 (公敎育)**: 국가와 공공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국·공립학교와 학교법인 또는 사인(私人)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에서 제공하는 학교 교육
- **사립학교 교육**: 일부 학자는 교육비의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사립학교 교육을 사교육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 평가에서는 공교육에 포함
- **그림자 교육 (shadow education)**: 최근 세계적으로 활용되는 사교육의 비유적 개념으로 사교육이 공교육과 병렬 구조 하에서 공교육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점을 강조하는 개념

2. 사교육 실태조사 결과

▶ 가계에 경제적 부담을 주고 사회적 문제 야기

- 경기침체에 따른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 지출은 유지 또는 증가하여 가계에는 경제적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음.

※ '08년도 사교육비 총 규모는 20조 9천억원으로 '07년 20조 4백억원보다 4.3% 증가

- 가계소득에서 차지하는 높은 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특히 중산층 및 저소득층에 더욱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 소득대비 사교육비 비율 : 고소득층(4.3%) < 저소득층(4.6%) < 중산층(5.6%) (LG 연구원, 09.3)

- 저출산 심화, 기러기 아빠와 가정해체, 소득계층 간의 위화감(가난 대물림 고착화) 등과 같은 많은 사회문제들이 사교육비와 깊은 관련을 맺고 있음.

< 최근 사교육비 규모 조사 결과, KEDI / 통계청 >

구 분	'01	'03	'05	'07	'08
사교육비 (억원)	106,634	136,485	176,774	200,400	209,095

* '01년, '03년, '05년은 한국교육개발원(KEDI) 조사결과, '07년, '08년은 통계청 조사 결과임

* '01년~'06년(KEDI) : 연평균 12.1% 증가, '07년~'08년(통계청) : 연평균 4.3% 증가

▶ 사교육 유발 요인 (1) : 공교육의 낮은 만족도

- 학교교육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공교육 개선을 위한 교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함.
- EBS,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 학생들의 다양하고 개별화된 학습 수요를 충족시키기에 부족함.
- 학교교육의 교육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어렵지만 사교육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처방임.

▶ 사교육 유발 요인 (2) : 사교육을 조장하는 입시

- 일부 고등학교에서 과도하고 비생산적인 사교육을 유발하는 입학전형을 실시하여 진학을 위한 경쟁을 과열시키고 있음.
- 상급학교 진학시험의 수준이 높고, 교육과정 이외에서 출제될 경우 학교에서 학생 개인에 대한 개별화된 준비가 부족해지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짐.

〈 입시전형과 사교육비의 관계 〉

- 사교육 중 영어·수학의 비중이 크고, 지속적으로 증가
 - * '08년 기준 : 영어 7.6만원/월(11.8% 증가), 수학 6.2만원/월(8.8% 증가)
 - * 초중고 학생들의 TOEIC·TOEFL·TEPS 응시자 수 급증('07년 58.5% 증가)
- 논술 등의 반영 축소에 따라 사교육 논술시장 감소
 - * '08년 기준 : 논술 7천원/월(12.5% 감소), 제2외국어 등 5천원/월(16.7% 감소)

3. 사교육 국제 비교

▶ 각국의 사교육 실태

- 사교육은 우리나라와 홍콩,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에만 있는 고유한 현상은 아니며,
 - 미국을 포함하여 아시아의 싱가포르, 스리랑카, 미얀마, 남미의 브라질,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탄자니아, 모로코 등 전세계적인 현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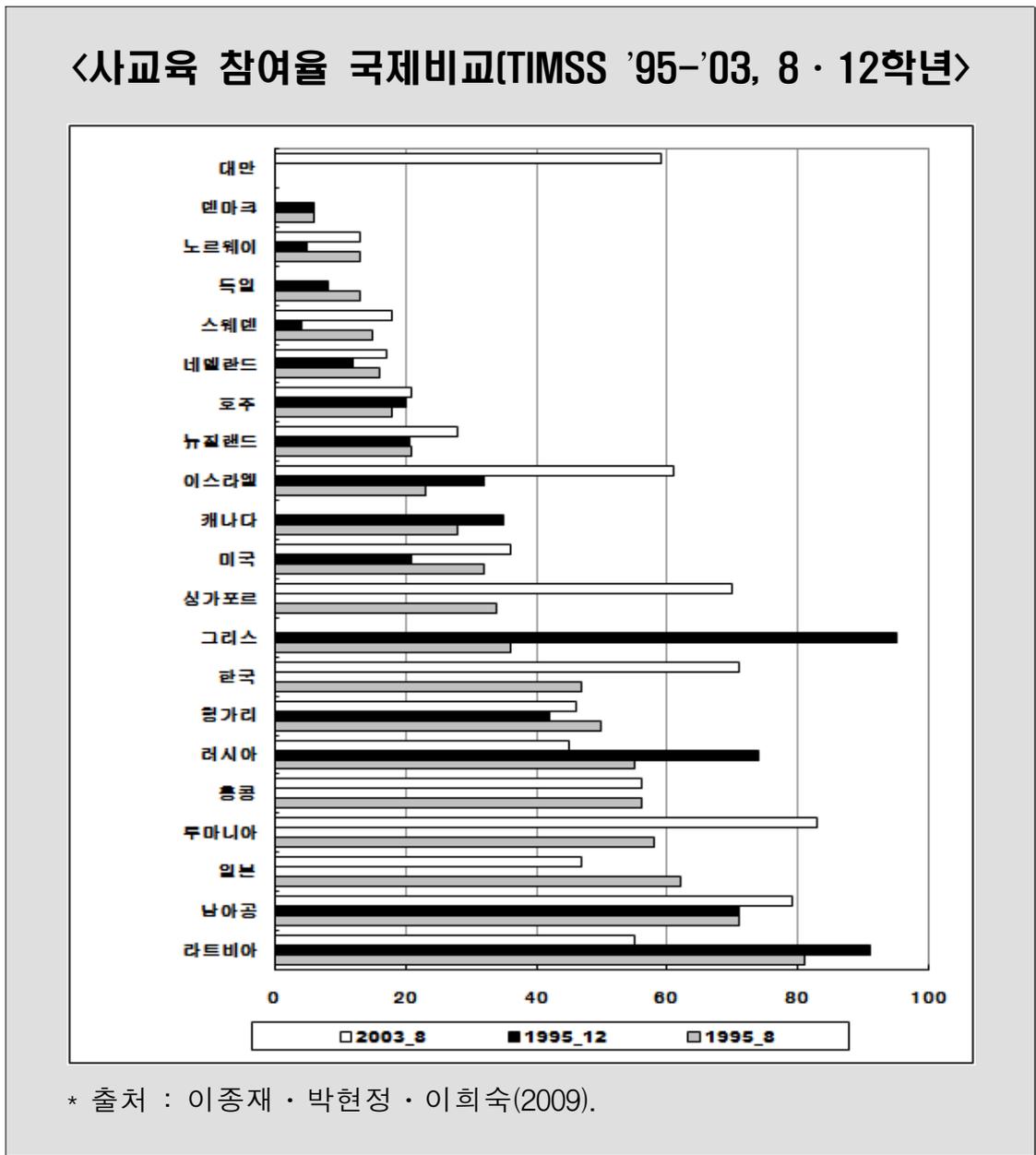
- 국제적인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보면, 한국 등 동아시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특히 높은 수준을 나타냄.
 - 한국 : 초중고학생 **75.1%**가 사교육 참여(통계청, 2009)
 - 일본 : 중등학생 **75.7%**가 사교육 참여(문부성, 2003)
 - 타이완 : 중등학생 **81.2%**가 사교육 참여(Tseng, 1998)
 - 베트남 : 고등학생 **76.7%**가 사교육 참여(Dang, 2007)
 - 캐나다 : 16세 학생 **20%**가 사교육 참여(Davies, 2002)
 - 미국 : SAT 준비를 위해 고등학생의 **11%**가 학원 이용, **7%**는 튜터(tutor)를 활용(Buchmann et al., 2007).

- 국제적인 사교육 참여율이나 사교육비 규모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교육은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이며, 사교육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임.

- 입시제도는 불필요한 사교육을 유발하고 있는 것은 사교육비 증가의 한 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세계적인 사교육 동향 분석

- PISA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한 결과, 과학의 경우 57개국 중 사교육 참여율이 40% 이상인 국가가 37개국, 수학은 42개국인 것으로 나타났고,
- OECD 평균 사교육 참여율은 과학 34.4%, 수학 46.4%로 나타났음(이종재 외, 2009).



1. 외고 대비 사교육 실태

●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서울과 경기 지역 1,296명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로, 강남, 중계, 평촌, 목동, 분당 교육과열지구 빅 파이프 지역 학생을 대상이었다. 외고를 희망하는 학생들의 91.9%가 관련 사교육을 받고 있었다. 외고 희망하는 학생들의 평균 사교육비는 71만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교과 사교육비가 전국 평균적으로 초등학생 17만 4천원, 중학생 22만 6천원이다. 그러나 외고 전문 학원의 비용이 평균 70-80 만원을 넘는다. 여기에 과외 1-2개 받으면 100만원이 금방 넘어 버린다. 물론, 외고가 없어도 사교육비는 든다. 외고를 가지 않는 학생들도 사교육을 받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고를 가기 위해서는 더 많은 사교육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다.

<표 1> 사교육 여부

			사교육 여부		
			받고 있다	안받고 있다	전체
외고 희망	희망	빈도	411	36	447
		외고희망여부의 %	91.9%	8.1%	100%
외고 비희망	비희망	빈도	657	192	849
		외고희망여부의 %	77.4%	22.6%	100%
전체		빈도	1,068	228	1,296
		외고희망여부의 %	82.4%	17.6%	100%

<표 2> 외고 진학 희망 학생과 비희망 학생간 사교육비 차이 비교

한달 사교육비	외고희망여부	N	평균	표준편차	평균의 표준오차
한달 사교육비	희망	256	710,468.	338,262	21,141
	비희망	397	534,365	340,092	17,068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대안연구소가 전국 외고생을 대상으로 조사

한 바에 따르면, 서울 지역 외고생의 94.6%가 외고 입학 사교육을 받았다고 응답했으며, 경기 지역은 83.8%가 받았다고 응답했다. 그런 점에서 외고는 고교 입시 사교육에서 상당한 증폭 요인을 가지고 있거나 중요한 변수가 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서울권 외고의 경우에는 사교육 없이 입학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그대로 드러난 설문 결과이다.

〈표3〉 입시사교육여부

		입시사교육		전체
		예	아니요	
서울	빈도	592	34	626
	지역별외고의 %	94.6%	5.4%	100.0%
경기	빈도	779	151	930
	지역별외고의 %	83.8%	16.2%	100.0%
광역	빈도	393	204	597
	지역별외고의 %	65.8%	34.2%	100.0%
비광역	빈도	369	344	713
	지역별외고의 %	51.8%	48.2%	100.0%
전체	빈도	2133	733	2866
	지역별외고의 %	74.4%	25.6%	100.0%

외고 입시의 학원 의존도는 지방에 비해 서울 및 경기권 외고가 높았다. 수도권 지역 외고 재학생의 경우 외고 입학에 가장 많이 도움을 준 것을 학원으로 응답한 학생이 75.6%였으며 지방은 58.4%였다. 오히려 비광역권 외고의 경우 과외가 외고 입학에 가장 많은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14.1%로 서울 1.3%, 경기 3.9%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수도권 지역에 특목고 전문 학원이 다양하고 전문화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서울, 경기, 광역권 외고의 경우 10%가 채 되지 않는 학생들이 외고 입학에 학교수업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고, 비광역권 외고의 경우만 재학생의 13.1%가 학교 수업이 외고 입시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학교 수업 이외의 요인 보다 사교육이 외고 입학에 가장 많이 도움을 주었다고 응답한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은 외고 입시의 문제가 중학교 정규 교과 수준을 뛰어넘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고난이도 문제의 출제가 계속될 경우 중학교 공교육 붕괴라는 또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표4〉 지역별 외고 입학과 관련한 사교육 의존도

		외고입학에가장많이도움준것_외고만						전체
		학교수업	학원	과외	인터넷강의	학습지	기타	
서울	빈도	49	490	8	9	4	61	621
	지역별외고의 %	7.9%	78.9%	1.3%	1.4%	.6%	9.8%	100.0%
경기	빈도	72	682	36	23	7	109	929
	지역별외고의 %	7.8%	73.4%	3.9%	2.5%	.8%	11.7%	100.0%
광역시	빈도	53	372	56	20	8	44	553
	지역별외고의 %	9.6%	67.3%	10.1%	3.6%	1.4%	8.0%	100.0%
광역시 외	빈도	87	357	93	37	21	66	661
	지역별외고의 %	13.2%	54.0%	14.1%	5.6%	3.2%	10.0%	100.0%
전체	빈도	261	1901	193	89	40	280	2764
	지역별외고의 %	9.4%	68.8%	7.0%	3.2%	1.4%	10.1%	100.0%

이처럼 사교육 중심에는 특목고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목고 로드맵이라는 것이 이미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회자되고 있다. 유치원은 영어유치원을 다니고, 초등 저학년 때는 영어어학원과 수학 선행학습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등 고학년 때는 영어어학원, 수학선행학습을 하면서 조기 유학 내지는 해외 연수도 다녀와야 한다. 영어를 해놔야 최소한 외고를 간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초등학교 때는 민사고와 과학고 등을 함께 노린다. 중학교 1-2학년 때 토플이나 텡스 등을 준비한다. 영어 인증 성적을 올해부터 반영을 안하지만, 일부 학교에서 일본어나 중국어는 상당한 수준의 인증시험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생들이 HSK, JLPT 또는 JPT 시험을 본다. 과학고나 민사고나 외고나 여부는 결국 수학 성적으로 판가름난다. 수학이 상대적으로 쳐지면 결국 외고를 가게 된다. 그렇게 보면, 영어 유치원(학원)이 월 70-80만원, 어학원이 한달 30-35만원, 외고 전문학원 월평균 70-75만원을 내야 한다. 이런 특목고 사교육 로드맵 과정을 그대로 따라간다면, 해외 유학 및 영어 캠프를 다녀오지 않고, 수학 선행학습이나 별도의 내신 관리 사교육을 받지 않은 채 일상적인 영어사교육만을 받는다고 가정하더라도 현시점에서 4,500만원에서 5,200만원 가량(물가상승 미반영)의 사교육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김성천, 여의도연구소 주최 정책토론회 발표자료 2009.12.21】

2. 중학교 교육과정 수준을 넘는 입시 문제 출제

● 사례 1 : 2009학년도 ○○ 고등학교 심층영어 면접 질문지

* 제시된 내용을 읽고 주어진 시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였다가 면접관 앞에서 답변합니다.

(A)

Placebos, also called “ sugar pills,” are medicines with no medically active elements. A placebo has no chemical effect, but it can still make patients feel better because they expect it to work. When a patient’s condition actually improves after taking an inactive “ sugar pill,” the *phenomenon is called “ the placebo effect.” Doctors have used placebos since at least 1811, but even today no one is quite sure how they work.

Some experts think that placebos may activate a special function in the brain. When patients expect to get better, their brain sends “ feel better “ signals and their condition improves. They claim that the use of placebos reveals an amazing aspect of the human body. Others, however, claim that the placebo effect is not real. They say it is just a case of patients ①to heal naturally over time. ②Whether or not they are effective, placebos come in a variety of forms. To have any effect, placebos must look like real medicines or medical treatments. If patients know that they are taking an (가)effective/ineffective substance, then the expectation is ruined and it will have no effect.

Whether the placebo effect is fact or fiction, we all have powerful beliefs in medicine’s healing ability. These beliefs can (us, ourselves, help , well, think)

*phenomenon 현상

(B)

Do students do better in school just because their teachers think they are smart? In 1968, American psychologist Dr. Robert Rosenthal did an experiment at an elementary school ③to find out the answer. He was especially interested in learning whether high teacher expectations could improve student's academic performance, or make the students smarter.

In the experiment, Dr. Rosenthal told a teacher that certain students in her class were more intelligent than others. These students were randomly selected, and none ④were actually any smarter than their fellow students. However, it was the selected students ⑤who did better in class! Dr. Rosenthal concluded that students who are treated as if they are brilliant tend to behave intelligently. He called this conclusion the “ Pygmalion Effect.”

Sometimes we show our expectations in subtle way. When we lean forward to listen, raise our eyebrow, or show a warm expression on our face , we communicate (나)positive/negative expectation. People pick up on these signals and, most of the time, rise to the expect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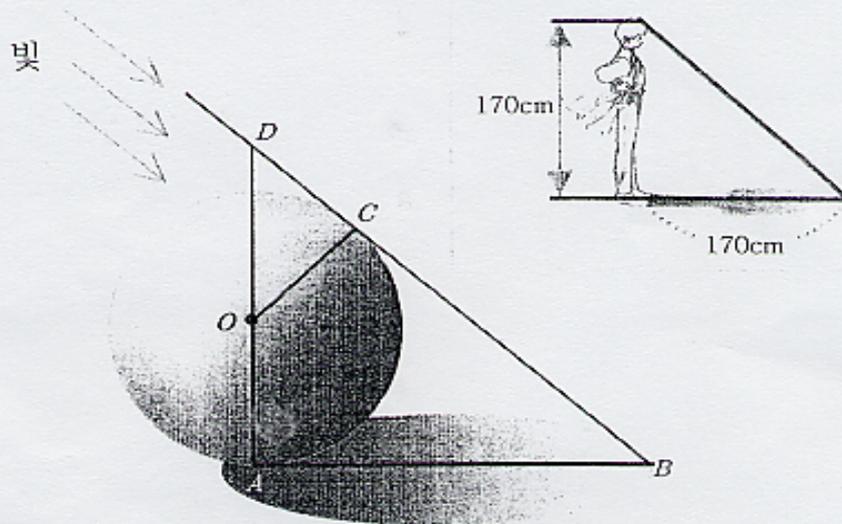
< 질 문 >

1. 글 (A)에서 an amazing aspect of the human body 와 상응하는 것을 글 (B)에서 찾아 우리말로 설명하십시오.
2. 글 (A),(B) 의 밑줄 친 ①-⑤ 중 문법상 잘못된 것을 고르고 바르게 고치시오.
3. 글 (A) 의 (us, ourselves, help, well, think) 순서를 바로 잡으시오.
4. 글의 흐름으로 보아 (가) (나)에서 적절한 단어를 고르시오.
5. 글 (B)의 밑줄 친 부분을 우리말로 옮기시오.
6. Explain placebo effect in your words.

● 사례 2 : 2005학년도 ○○ 외국어고등학교 구술면접 질문지

영미네 반 학생 36명은 자연과 평화에 대하여 직접 체험하기 위해 일산에서 개최된 세계 꽃박람회에 참석하기로 하였다. 오전 8시에 학교 앞에서 모여 버스를 타고 박람회장으로 향하였다. 박람회장에 오전 9시 30분에 도착하여 간단한 주의사항을 듣고 4명씩 조를 이루어 보고서를 작성하기로 한 다음 관람을 시작했다. 영미와 동수가 속한 조는 여러 가지 꽃 조형물을 관람하던 중 각국의 국화로 만든 지구본을 보고 국화에 대하여 많은 것을 공부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영미와 동수가 속한 조는 이 조형물의 크기가 궁금해서 가지고 있는 줄자를 사용하여 그 크기를 알아보기로 하였다.

영미는 키가 170cm인 동수의 그림자 길이를 재어 보고, 같은 조건에서 다른 두 학생은 이 조형물의 지면에 닿은 점점 A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를 재어 보니 동수의 그림자 길이는 170cm 이고, 조형물의 점점 A에서 그림자 끝까지의 길이는 10m 이다. 그렇다면, 이 조형물의 반지름의 길이를 다음의 그림을 보고 말해보시오.(단, 조형물은 중심이 O인 구 모양이고, 점 C는 접점이며 $\sqrt{2}$ 은 1.4로 계산한다.)



● 사례 3 : 2006학년도 ○○ 외국어고등학교 구술면접 질문지

이탈리아 정부는 해마다 물에 잠기는 도시 베네치아를 보호하기 위해 수중 댐을 건설하는 ‘모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모세 프로젝트는 높이 28m, 두께 5m, 너비20m 크기의 직육면체 모양의 수문을 평소에는 해저에 눕혔다가, 해수면이 상승할 때 공기를 주입시키면 수문이 올라가 바닷물의 유입을 막아준다는 것이다.

그림은 수문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수문이 상승하여 A지점이 해수면에 왔을 때부터 수문내부 공기의 양을 측정하였다. A지점에서 수문과 바닷물이 만나는 P지점까지의 길이를 x , 공기의 양을 y 라고 할 때, x 와 y 의 관계를 바르게 나타낸 것은?(4.1점)

